

괴운 권해조 장군 본보 편집위원 별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으로, 본보 괴운槐雲 칼럼에 칼럼니스트로 활동한 권해조權海兆 예비역 장성(준장)이 지난 2026년 9월17일 21시48분 향년 85세로 별세하였다. 장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 4일장으로 1차 장지는 서울추모공원, 2차 장지는 오전 11시 국립서울현충원이었다. 이날은 추석연휴 첫 휴일이라 성묘객이 현충원에 넘쳐나 도로가 막혀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반 가량 장례절차가 지연되었다. 봉안식장 예식을 마친 다음 제2충훈당 709 봉안실 709313에 유해가 안치되었다.

1942년 합천군 대병면 성리 죽전마을에서 태어난 고인은 자가 대경大卿이고 호는 괴운槐雲이다. 북야공과 16세 감정공監正公(執德)계 20세 삼괴당三槐堂(時敏)계 36세손으로 삼산초등 6회·합천중 13회·대전고 42회·육군사관학교 24기·충남대 경영대학원·국방대학원을 졸업하고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주요 경력은 1987년 육군 제1보병사단 포병연대장·1989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정책운영처장·1991년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 국방무관(준장)·1995년 국방부 해외정보부 차장·1996년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국방무관·1998년7월31일 예비역 육군 준장으로 퇴역·1998년~2003년 국방부 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2002년~2005년 육군사관학교 정치사회학과 초빙교수·2011~2015년 대한민국 성우회 안보전문교수를 역임하였다.

1971년 월남참전유공 표창·1981년 보국훈장삼일장·



대통령표창 2회·1986년 미육군성 공로훈장·1995년 주태국정부 공로훈장·1998년 일본정부 육일중수장 등을 받았으며, 한일군사문화학회 회장·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부회장을 지냈다.

문예활동은 대중회 종보 편집위원 칼럼니스트·전 안동권씨종보사 능동춘추 편집위원 칼럼니스트·합천신문 논설위원·경기대일리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2002년 합천신문 논설위원으로 위촉된 후 2016년12월 합천신문 창간 20주년 공로상을, 2021년 담쟁이문학 수필상을 수상하였다. 저서로는 2012년8월 수필집 《해나무 그들의 노병》을 발간하고, 2022년 산수기념집傘壽記念集 《권해조 칼럼 선집》을 발간하였다.

유족은 배우자 성산星山 이정화李貞姬 여사, 아들 권덕근權德根·며느리 최준희, 딸 권민정權政庭·권수영權秀

英, 사위 이경필李京泌·황찬규黃燦圭, 손자 권도현·권도훈, 외손자 이용진, 외손녀 이유진·황윤지이다.

부친은 합천의 대표 유학자 설암雪岳 권옥현權玉鉉(1912~1999) 선생으로 고인은 권사영權四榮·해승海丞·해극海克·해조海兆·해로海老·해두海斗 6형제 가운데 4남이다. 설암선생은 2003년 죽한정사竹軒精舍 간행 설암문집(18권6책)을 남겼다. 또 감정공계의 족형族兄이자 합천의 대표 유학자이며 스승인 추연秋淵 권용현權龍鉉(1899~1988) 선생이 남긴 태동서사인행泰東書畵印行 추연문집秋淵文集(44권15책)에 적전嫡傳으로서 행장行狀을 지었다.

고인의 고향인 합천은 여러 장성이 배출된 지역으로, 특히 대병면의 금성산金城山·악견산(岳堅山)·허굴산墟窟山 인근에 산세가 수려하고 장풍과 득수가 조화로운 탓인지 훌륭한 무관 인물이 많은 곳이다. 고인의 선배로 송선용宋璇用 예비역 중장(육사14기) 대병면 장단리, 후보로는 송대성宋大晟 예비역 준장(공사17기) 대병면 하곡리, 권영기權泳基 예비역 대장(갑종간부후보생 222기) 대병면 성리 평화마을, 권영현權暎鉉 예비역 소장(학군사관 27기) 대병면 장단리, 이웃 용주면 출신 김운용金雲龍 예비역 대장(육사40기), 가회면 중촌리 동곡마을 출신 윤종호尹鍾昊 예비역 소장(육사19기), 율곡면 출신 전인구 예비역 준장(육사27기), 조계면 출신 서명상 서명상 예비역 준장(육사30기), 율곡면 내천리 출신 제11대·12대 대통령 전두환全斗煥 대장(육사11기) 등의 인물이다.

글 권오달 권해두·사진 부울신문 객원기자 권해두

哀兄(애형)—형님을 슬퍼하며

忠魂一片向天涯(충혼일편향천애)
戎馬平生護國家(음마평생호국가)
忽別人間心欲碎(홀별인간심욕쇄)
長懷兄愛意無涯(장회형애의무애)

한 조각 충혼은 하늘 끝을 향하고,
평생 군인의 길을 걸으며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회복하시어 다시 뵈 줄 알았지만 홀연히 이별하니
형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은 오래도록 끝이 없습니다.

제弟 해로海老 근만謹挽

형님을 추모하며

형님,
오늘 이렇게 형님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여도 병상을 털고 일어나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쇠약해진신 모습이 마음 아팠지만,
다시 밝은 모습으로 형님을 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형님께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형님과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미어지게 하고 눈시울을 적십니다.
한평생 군인의 길을 걸으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형님이시여,
월남의 뜨거운 전장에서 조국의 부름에 응하여

나라와 전우를 위해 헌신하셨고,
태국과 일본에서도 군의 사명을 다하시며
대한민국 군인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이셨습니다.
머나먼 이국의 땅에서도
말은 바 임무를 한결같이 다하시며
평생을 조국과 군을 위해 살아오신
참으로 자랑스러운 군인이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나라를 위해 살아오신 형님께서
어찌 한마디 말씀도 남기지 못한 채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십니까.
곁을 지켜온 형수님과
사랑하는 아들딸, 사위와 며느리,
그리고 자랑스러운 손자손녀들을 뒤로하고
어찌 이 모든 정을 남겨둔 채 떠나십니까.
남은 형제들도 형님을 보내드리며
차마 다하지 못한 정과 아쉬움을 가슴에 묻습니다.
형님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이제는 그리움으로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형님,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평생 나라와 가족을 위해 애쓰셨으니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
부디 편안히 영면하십시오.
아우 해두 올림



동정

▲ 권민수 신임 한국은행 부총재가 21일 취임했다. 권심 임 부총재는 1995년 한은에 입행한 후 국제국과 외자운용원에서 외환시장 및 국제금융 실무를 두루 거쳤고 최근까지 국제금융·협력담당 부총재보로서 원화 국제화와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주도해 온 대표적인 국제금융 전문가다. 권 부총재의 임기는 3년이다.

▲ 권순박(57) 경북도 안전기획관이 영덕군 신임 부군수에 10일 취임했다. 1993년 공직에 입문한 그는 율령군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경북도 치수제

관관리과와 도시계획과, 감사관실, 하천과, 균형개발과 등 주요 부서를 거치며 현장 경험과 정책 기획 역량을 두루 쌓았다. 특히 자연재난과 팀장과 감사관실 근무를 거쳐 경북도 자연재난과장, 농촌협력과장, 수자원관리과장을 역임했다. 권순박 부군수는 성실한 공직 수행과 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2000년), 국무총리 표창(2010년), 감사원장 표창(2017년)을 수상했다.

▲ 권민준 웨니웨이슬루션 대표이사가 지난 1월에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방호복 7,000벌을 기탁했다. 권 대표는 용궁면 출신이다. 권 대표는 지역사랑이 남다르다. 고향 예천은 물론 인근의 문경시와 안동시 등 경북 북부권 일대를 대상으로 봉사과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유니웨이슬루션은 LED 가로등과 바닥 신호등 설치 등 안전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기업 방송 제작, 베트남 방송 송출과 연계한 글로벌 네트워크 판매망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권오만 경북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가 지난 4월 대한건축학회로부터 학회상을 수상했다. 지난 2022년 8월에는 《디자인과 철학의 공간 우리 공

궐》을 집필했고, 2018년에도 《잊혀진 문화유산 : 해자와 풍류 이야기》를 출간했다. 2022년에 창작산맥 시 분야 신인문학상 당선으로 등단하였다. 인하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한 후, 국민은행 본점에 입행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

▲ 권영빈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초빙교수가 ‘포스트 한일 관계 서사를 향한 마음의 지리학 : 김금희 “대은실 수리 보고서” 평론으로 ‘2026 제44회 신동엽문학상 평론부문’을 수상했다. 1984년 부산에서 태어난 권 교수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동아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23년 창비신인평론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인 비평 활동을 시작. 현재 부산 비평 전문 문예지 “오늘의문예비평”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권은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저서 ‘경성 모더니즘과 혼종적 에크리튀르’가 ‘2026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 학술도서’ 인문학 분야에 선정됐다. 권 교수의 저서는 식민지 도시 경성을 배경으로 형성된 모더니즘 문학을 공간과 언어, 감각이라는 세 가지 층위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한 연구서다. 식민지 도시의 공간 구조와 권력관계가 문학 장르와 서사 형식, 근대적 감각의 형성과정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규명했다.

▲ 권현호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지난 3월 ‘제19회 심당학술상’을 수상했다. 국제거래법 및 국제통상법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학술적 성과를 거둔 연구자에

게 수여된다. 권 교수는 논문 〈AI와 국제통상법: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통해 21세기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국제통상법의 새로운 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해 AI 시대에 걸맞은 국제통상 규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

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 교수는 논문 〈AI와 국제통상법: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통해 21세기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국제통상법의 새로운 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해 AI 시대에 걸맞은 국제통상 규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

樞密公 派祖 歲享 및 定期總會 案内

晩秋之節에 우리 派親님들의 康寧과 家內均安을 기원합니다.
樞密公 派祖와 忠憲公의 丙午年 秋享祭禮 奉行과 樞密公派 定期總會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追惟報本과 大宗會 發展을 지원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일 시 : 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10시 30분
- ♣ 장 소 :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산177번지 단소
- ♣ 집 합 출 발 :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8번 출구. 관광버스 2대와 인솔자 대기. 8시 15분 출발
- ♣ 개 별 출 발 : 자가용-네비-두포나루터-전진교검문소-출입승인절차-인솔자와 단소 동행
- ♣ 지 참 증 명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민통선 출입용)
- ♣ 진 행 : 1. 秋享祭禮 2. 定期總會 안건: 회장 및 감사 선출 3. 食事
- ♣ 연 락 처 : 권경일 사무처장 010-3039-7282
- ♣ 찬조금, 회비 : 하나은행 231-910037-19104 안동권씨추밀공파대총회
- ♣ 회관 헌성금 : 농 협 317-0009-2118-41 안동권씨추밀공파대총회

安東權氏樞密公派大宗會 會長 權 五 敦